

금주의 칼럼

하나님 편에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허리띠 버클에는 "Gott mit uns"(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국민과 장병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총부리를 겨눈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는 습성은 오래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든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수 5:13~14) 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세우려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내 뜻을 이루어주실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었드렸듯이 우리도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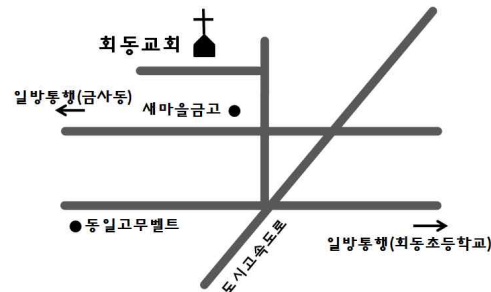
-----국민일보-----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

- 타지키스탄 (최**-서** 선교부)
- 국제기아대책(동래지역-선교부)
- 캄보디아 (최** 살롬회)
- 교경협의회(금정경찰서, 선교부)
- 총신대학교 (박성규. 선교부)
- 네팔선교(차**-2남전도회)
- 부루키나파소(김** 3여전도회)
- 한국대학생 선교회(박**지-4여전도)
- 인도네시아(배** 2여전도회)
- 인도네시아(조** 1남전도회)
- 동부산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부, 본회계)
- 삼척소명교회(고진용, 권사회)
- 부산신학교(교단신학교, 기도후원)
-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금정지역)

교회 집회 안내

예 배 시 간	집 회 시 간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기 도 회 오후 7: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유 * 초 등 부 주일 9: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중 고 등 부 주일 9:00
새 벽 기 도 회 매일 5:30	청 년 부 주일 12:45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동교회

주일예배 강론: 정운락목사 오전 11: 00 / 사회: 강병욱 장로

입 레	입례송 / 기원
표 어 제 창	" 내가 기도하노라 " (빌 1:9)
찬 송	1장
교 독 문	31문 (시편 68편)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455장
기 도	강병욱 장로
성 경 교 독	에베소서 4:11-16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교회부흥의 주인공이 되려면
찬송*봉헌	450장 / 봉헌
봉 헌 기 도	설교자
광고*교제	교회소식 / 성도의 교제
찬 송	620장 (1절)
축 도	설교자

○ 표시는 일어섭니다

- 담임목사: 배 영 조
- 장 로: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 선교사: 최강주*서현아
- 전도사: 허춘성 박옥주
- 지 휘: 김태호
- 반 주: 김정숙

2026. 9 . 6 / 제 48-36

2026 비전 :
" 내가 기도하노라 " (빌1:9)
since 1979.

찬양예배 오후2시 사회: 최진수장로

작은집자가 찬양 [1:45-2:05]

입 레: 사회자
찬 송: 463장 / 455 장
기 도: 박상태집사 (다음: 박영수집사)
성 경: 마21:13-22
특 송: 자원자 (다음: 자원자)
말 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 허춘성전도사
광 고: 사회자
폐 회: 주기도문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말씀: 신명기 강해 / 인도: 배영조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말씀: 요한복음 강해 / 인도: 배영조목사
[토 ~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 1층 교육관

- 본회계 부산은행 073-01-033878-7 회동교회
- 선교 부산은행 112-2335-8311-00 최은경
- 건축 새마을금고 9002-1699-9318-3 회동교회

9 월 봉사 안내

차 량	(오전) 김수안 오세영 / (오후) 김수안(온천) 박영수(재송)
안 내 / 식 당	남선이 / (주방) 이순점 이은심 / (청소) 강형순
중 식 봉 사	1주(6일) 2주(13일) 3주(20일) 4주(27일)
기 도	7,8구역 9,10구역 1,2구역 3,4구역
주 일 예 배	강병욱 최진수 오정수 강병욱
주 일 오후	박상태 박영수 김장우 김종섭
삼 일 밤	합심기도

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회동동) Tel. 522-8771, Fax. 525-7191

홈페이지: <http://hoedongch.org/index.html> [네이버에서 "회동교회"]

교회 소식

-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1 9월안내: 9월 봉사및 행사 안내 나갑니다. 주보참조
- 2 구역모임: 9월부터 구역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열심히 구역모임을 가지 시기 바랍니다. 구역공과는 생명의 양식란 참조
- 3 강론: 오늘 주일 말씀 강론은 정운락 목사님이십니다.(주안교회, 원로목사)
- 4 생명의 양식란: 가정사역에 대한 내용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숙독바람
- 5 안내
 - 1) 동래시찰회행사: 8월 31-9월 11일
 - 2) 임직자교육: 9월 둘째주일
 - 3) 경배와 찬양: 9월 둘째주일
 - 4) 제직회: 9월 셋째주
 - 5) 월례회: 전도회 월례회 9월 셋째주
- 6 특송: 주일오후 특송은 자원자로 신청받습니다.(전도사님께 문의)
- 7 교역자휴가: 담임목사님은 휴가중에 계십니다. 동래시찰회 행사에 참석

교역자 여름 휴가

박옥주 전도사: 8월 10일(월)부터 한주간
허춘성 전도사: 8월 17일(월)부터 한주간
배영조 목사: 9월 1일 - 11일

동래 시찰회 행사

행사명: 종교개혁지 탐방 일시: 8월 31-9월 11일,
[독일을 중심한 인접한 4개국 종교개혁지 탐방]
시찰회에서 26명 참석 [회동교회: 담임목사부부,오장로부부 참석]

9월 행사 안내

* 동래시찰회 행사: 8월 31-9월 11일	* 주석명절: 9월 25일, 및 연휴
* 구역모임: 9월 구역모임.	* 동래시찰회모임: 9월 중순
* 경배와 찬양: 둘째주	* 전도팀 전도: 첫째주, 셋째주 전도
* 전도회 월례회: 셋째주일	1교구/ 2교구
* 제직회모임: 9월 셋째주	* 노회: 장로고시 교육(교육1부) 9월 하순경
* 임직자교육: 9월 둘째주	장로고시(고시부) 10월 초순경
* 추석 구제명단: 구제부 주관	* 권사기도회: 매달 넷째 주 화요일
* 구역장모임: 9월 마지막주일	* 새가족부 : 세미나실, 점심 후 성경공부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 김수안*허춘성 김은수*김은숙 박위순
배성현 오정수*최은경 이현정
- ◆**감 사:** 김수안*허춘성 김은수*김은숙 배영광
오세영 이성희*강승경 무명
- ◆**선 교:** 오세영 이말연
- ◆**건 축:** 오세영 이말연 김수안*허춘성

양육,친교 모임

프로그램	모임시간	모임장소
새가족부	주일 오전 12:40	1층 세미나실
구역장모임	주일 (매달 마지막주)	3층 교육관
돌봄교실	주일 오후예배시간	교육관/ 별관
기초교리반	상 . 하반기(문답교육)	1층 세미나실
성경강해	마태, 시편, 신명기	본당
친교(탁구부)	주일/ 오후예배후	별관

구역 모임 보고

9월 모임

구역	구역장	모인수	전도	헌금	성경	모인곳
1교구						
1	이순점				3153	
2	강형순				7730	
3	이은심				7170	
4	백운자				10735	
5	김경애				5200	
2교구						
6	이봉순				2250	
7	박광자	5			3550	김중렬
8	이현정				10320	
9	전만주				5789	
10	김종섭				1440	

생명의 양식

09-1 자녀 축복의 중요성(3) 창 27:30-37 구역공과

왜 부모님의 축복이 중요할까요?

1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라야 가짜 축복에 현혹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될까요?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
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 종교가 많습니다.

이단 종교의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식은 가짜 축복을 준다는 것
입니다. 그들은 가족이 주는 안정감과 개인적 관심, 확신, 애정
을 줍니다. 이런 요소들이 축복을 갈구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유
혹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그런 이단
종교와 거짓 축복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단이 맛있는 가짜 축복을 차려놓고 냄새를 피우며 유혹하는
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자신이 사랑 받고 인정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단 종교와 거짓 축복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정신적 여유가 생겨서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쉽게 깨지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렸을 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인 '부모를 떠나'라는 원리를 실천하기 힘듭니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도 자
기 중심으로만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 결과 배우자 및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소홀히 하는 성
향을 갖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인정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의 기본은 '언약'에 있습
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부부관계를 언약
의 관계로 보지 않고 꼭 인정받아야 지탱할 수 있는 관계로 보
니다. 그래서 가정 내의 삶이 '집사람'의 삶이 아니라, '둘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않고 정서적인 수많은 문제가 생
기게 됩니다.

여유 없고, 공격적이고, 불안정, 민감한 태도가 바로 그러한 예
입니다.